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급증...45%는 전남서 빠져나갔다

최근 4년 간 농축산어업분야  
이탈자 7465명 중 2212명이 전남  
불법체류 문제 등 각종 부작용  
개별 농가 아닌 농협이 주도해  
계약 맺고 숙소와 일손 제공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



계절근로제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서 고구마 줄기 모종 작업을 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도(農道)인 전남에서 계절근로제나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이탈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어업 3만7818명) 등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개별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인 탓에 비용이나 노동자 관리 부분 등에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뒤 비중이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명(계절근로제 2523명·고용허가제 4942명)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는 전체 87.5%(2207명)에 달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도 12.5%(316명)나 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이탈 노동자는 계절근로 474명·고용허가 1738명 등 총 2212명으로, 전국의 45%나 차지했다.

이어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 등의 순이었다.

계절근로제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불법체류자 증가와 인권 등 사회문제는 물론 농여가의 불법체류자 고용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노동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공정한 숙소 제공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에 따르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경우 노동자 이탈이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개 농협이 첫 시작한 이후 2023년 19개 지자체 23개 농협이 시범 사업으로 참여했고, 올해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으로 확대됐는데 이탈자 수는 극히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고, 올해는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하는 데 그쳤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고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숙사·숙소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남 응급환자, 전남대병원 사망률 광주 환자보다 높다

환자 1000명 당 사망률  
전남 8.6명·광주 7.2명  
응급의료 접근성 떨어져

전남 지역 응급환자들이 전남대병원에서 사망한 비율이 광주 환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대병원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광주 지역 환자의 1000명 당 사망률은 7.2명이었다.

반면 전남 지역 환자의 1000명당 사망률은 8.6명으로, 광주 환자에 비해 1.4명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전남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상황이라도 거리가 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새벽 0시 30분 기준으로 순천시청 또는 목포시청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응급 및 위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간이라

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0시 50분께 순천에서 피습을 당한 10대 여성도 전남대병원까지 이송돼 치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내놨다. 해당 여성은 순천 성가톨릭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새벽 3시 30분이 돼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5시께 사망했다.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직결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 동부권 순천과 서부권 목포간의 이동시간도 승용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두 지역이 상상할 수 있는 의대설립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자유 통일 한반도 실현되면 국제사회 평화 획기적 진전”

윤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6백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싱가포르 통화청 출연금을 기반으로 동남아연구소가 1980년에 창설했고, 같은 해 10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와 첫 강연에 나섰다. 이어 2회 강연자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초청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로드맵’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

광주지사 1688-1104

##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예약 3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10월 31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기공 - 부산항

-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 롯데관광 크루즈 스타쇼, 가수왕 선발대회
-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전세선

롯데관광만의 특별함!

### 스페셜 공연!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선상 퍼포먼스

방송인/가수

**임백천**

선상 콘서트

가수

**김수찬**

트롯 콘서트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 종료규정: 일반여행업 제46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만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0만원 가입 ●여행출발지: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692
-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항공,버스,해리,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